

국가 미래를 위해 중복 투자와 낭비성 시설의 근절이 필요한 때이다



하만복 | 前 한국도로학회 부회장 · 경상대학교

■ 국내의 건설 현황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국토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전 국토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빌딩 숲 등 도시화로 성장 발전된 모습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토가 줄어들어 1차 산업구조가 파괴되었으며,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전체적인 계획 없이 들어선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인한 우량농지잠식과 환경오염이다.

그렇다면 도로와 자동차의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시급 도로 이상에서는 넘쳐나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중로급 이하의 도로와 주거지 인근 도로 역시 빼곡히 들어선 차들로 주차 자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자동차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이 너도나도 편리성만 추구하며 나홀로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 이제 물려줄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와 버린 느낌

이다. 어지간한 골목길은 낮에도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야간에는 소방차와 응급차량들이 감히 근접할 수도 없게 된 도시 뒷길의 모습이 일상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인도 변 ‘개구리 주차’는 예사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대로와 중로급 도로 바깥 차선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꽉 차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 집이 들어서는 체계적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정반대 개념인데 한 마디로 집이 먼저 들어서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정반대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다 보니 수요 예측이 엉터리니 하면서 건설 계통 기술자들을 통째로 엉터리기술자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민자사업과 BTL사업의 경우 기업들은 일단 수주가 최대 목적이고 수주만 하면 어떻게 밀질 것이 없다 보니 엉터리 분석이 난무하고 준공 후에도 효용 가치가 떨어져 국민과 언론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마

다로 국가가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고 그 여파로 국민에게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 국내의 낭비성 시설과 중복투자 현황

건설분야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양심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정치인들은 표심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건설(신공항, 경전철 등 불필요한 공약사업)과 지자체와 공사, 국가기관과의 호흡이 맞지 않은 칸막이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와 국도, 지방도와 군도가 지역에 따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이동로가 중복된 곳이 많다. 게다가 기관들 상호간에도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 및 확장 시기를 맞추지 못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설치된 시설(I/C, 교량, 위험도로개량과 선형개량 등)과 구조물을 수차례 철거했다 재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의 안전시설 부문에서도 낭비성 시설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 예로 도로 표지병을 적설 한냉 지역과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에 과속방지턱 대응으로 사용해 기준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설치하여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신호등, 차선규제봉 등도 규정과는 달리 잘못 설치된 곳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중복 투자나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낭비성 시설물 등)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신공항, 케이블카 등)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정치공약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포퓰리즘 정책 도입 국가의 최후

포퓰리즘(Populism)은 한마디로 정치인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대중영합주의' 라고도 한다. 즉, 국가 경제에 해(害)가 되더라도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적 투쟁에 대중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즉 반대파나 지식인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대중을 끌어들이어 정치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들 수 있다.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떨쳤던 아르헨티나가 페론 정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까지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는 영화 '에비타'에 나오는 주제곡인데 에바 페론이라는 전설적 여인의 한 많은 사연을 담은 애절한 곡조의 이 노래가 슬금슬금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수없는 외세 침략으로 편할 날이 없었지만, 현재 세계 10위권내의 경제 대국이라는 기적과 같은 위업을 일궈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1997년 수평적 권력교체도 해했으며, 2002년에는 진보 세력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이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이 곳곳에 존재했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문어발식 복지공약과 낭비성 시설과 건설 등에서도 무분별한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마다, 심지어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단체장들의 선거때만 되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지지부진한 연기금 개혁으로 매년

몇 백억씩 국비를 충당하고 있고 몇십년 후면 연금금이 바닥날 처지이다 국내의 경제상황은 불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세입은 빠듯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바닥을 치면서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세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이 당장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복지 확대 또는 건설 등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진정한 복지는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제하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형 복지 정책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외층을 보듬는 탄실한 사회안전망은 마땅히 정부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양해 줄 부모형제가 없거나 있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보지 못할 경우의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시골지역의 학교는 도시지역과 달리 어려운 가정이 많으므로 무상급식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양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땀 흘려 일한 돈으로 자식을 부양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겹치면서 대략적으로 2019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복지 쓰나미'가 밀어닥칠지도 모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 역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는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한 복지정책, 미래를 생각지 않는 즉흥적인 정책 남발이 안타깝다.

■ 제대로 된 정책이 국가의 미래와 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예외없이 찾아와 아직까지도 모든 분야에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가계부채는 110조를 넘보고 있으며 국가부채 또한 줄어들 줄 모르고 급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이 성장을 견인하며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여파 등으로 신흥국의 성장이 약화될 조짐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국내의 건설투자는 SOC 투자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은 오늘날의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SOC)로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건설인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이른바 "복지정책"에 떠밀려 SOC예산은 낭비적인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최근상황을 보면 모든 분야의 위기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지만 다양한 연구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낭비성 및 중북투자 방지위원회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낭비성 및 중북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미래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유라시아(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등) 지역까지 포괄하는 차원에서 계획해야 하며 도로와 고속철도, 공항 등을 균형있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그동안 국가 지원금으로 걸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없는 일부터 벌이는 철없는 정치인과 일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무책임까지 합세해

빛어낸 예산낭비의 결정관인 B/C(경제성)가 턱도 없이 낮은 공약사업도로, 경전철, 신공항, 케이블카, 무분별하게 건립한 청사 등과 같은 과오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급선무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로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시·군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무분별하게 내세운 공약들이 이후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직시하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공약 검증에 더욱더 철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눈덩이 불어나듯 급격히 늘고 있는 나라 빛과 가계부채가 국가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갖 미사여구가 난무하는 무책임하고 경쟁적인 복지 정책과 즉흥적인 정책 남발이 판치는 복지 낭만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다.

회원가입안내

본 학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1999. 5. 29)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다음 사업내용으로 건실한 학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널리 회원을 모집하오니, 본 사업취지에 찬동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회하시어 본 학회의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도로공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 도로공학에 관한 조사연구와 성과의 보급
- 도로공학에 관한 저문, 평가 및 교육
- 도로공학에 관한 시방과 기준의 연구
- 학회지 ·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 학술발표회, 세미나의 개최
- 현장견학, 시찰 등의 실시
- 기타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회원의 구분

- 정 회원 : 도로 및 포장공학과 관련된 학문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 학생회원 : 도로 및 포장공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대학,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 참여회원 :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 명예회원 : 대의원회에서 추대한 자

회비

- 입회비 : 20,000원(정회원에 한함)
- 연회비 : ① 정 회원 : 30,000원 / (중신회비 400,000원)
② 학생회원 : 15,000원(대학 및 전문대학생에 한함)
③ 특별회원 : 특급 : 100만원 이상, 1급 : 50만원 이상
2급 : 30만원 이상, 도서관회원 : 10만원

입회신청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학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가입회원명으로 입금) 한국씨티은행 : 102-53510-243 (사)한국도로학회

사무국 : 우)121-706 서울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르네상스타워 1410호

전화 : 02-3727-1992~3 전송 : 02-3272-1994

E-mail : ksre1999@hanmail.net http://www.ksre.or.kr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